

2

제2장

1999년의 거시경제 개관

1 세계경제동향*

1. 개 요

세계경제는 97년 하반기 이후 아시아 위기의 발발을 계기로 나타난 성장 둔화세가 98년까지 이어져 98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5%에 그쳤으나 99년 세계 경제는 98년 하반기 이후 아시아 위기국들의 경기회복과 선진국 경제의 호조로 3.0%의 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1 세계경제의 성장추이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¹⁾
세 계 경 제	2.4	3.7	3.7	4.0	4.2	2.5	3.0
선진국경제	0.8	2.8	2.1	2.3	3.2	2.2	2.8
개도국경제	6.2	6.4	6.0	6.5	5.7	3.3	3.5
체제전환국	-8.5	-8.8	-0.8	0.1	2.2	-0.2	0.8

주: 1) 1999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 1999.

지역별로는 선진국간 경제성장상의 불균형을 보여 미국은 98년에도 경기 팽창이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었으며, 일본은 98년 적극적인 재정확대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3/4분기에 경기하락의 속도가 진정되는 듯 하였으나 연말에 경기침체가 다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필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왕윤중 연구위원 (국제거시금융실장), 경제분석과 이용재 사무관

그러나 99년 상반기에는 미국경제의 호황이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EU 및 일본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세계교역 증가율은 아시아 위기의 영향으로 97년의 9.9%에서 98년에는 4.6%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99년도에는 세계경제의 호조로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실업률은 98년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던 EU지역의 고실업 문제가 99년 들어 경기회복에 힘입어 점차 개선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 달러화는 98년에 주요 통화에 대한 약세 기조를 보였으나, 99년 상반기에는 미국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의 지속으로 강세를 시현하였다. 유가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확산 등으로 98년 40% 이상 하락했으나, 99년들어 3월 OPEC의 감산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 선진국 경제 동향

(1) 미국 경제

미국 경제는 91년 이후 8년째 지속되었던 성장세가 98년에 이어 99년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미국의 실질GDP증가율은 전년에 이어 4.3%를 기록했으며, 99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3.7%, 1.9%를 기록하였다.

미국 경제가 저물가 - 저실업률 기조하에서 장기호황을 지속한 것은 대체로 ① 재정적자 축소 및 선제적인 통화정책의 실시 ②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대외개방 확대 ③ 80년 중반 이후 지속된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효율성 증대 ④ 첨단산업의 핵심인 정보기술산업의 급성장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른 수출감소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으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무역수지적자가 99년 상반기까지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1,496억 달러로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 상대적인 미국경제의 호황으로 인해 미국으로의 국제자본 유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내 민간저축의 저조에도 불구하고 국내투자를 지속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2-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

	1997	1998	1998 2/4	1998 3/4	1998 4/4	1999 1/4	1999 2/4	1999 3/4
실질GDP	4.5	4.3	2.1	3.8	5.9	3.7	1.9	5.5
개인소비지출	3.7	4.9	6.1	3.9	4.6	6.5	5.1	4.6
비주택고정투자	10.7	12.7	12.1	0.0	15.3	7.8	7.0	13.3
정부소비지출	2.3	1.7	6.0	1.3	2.9	5.1	1.3	4.2
GDP디플레이터	1.7	1.2	1.1	1.4	0.9	2.0	1.3	1.1

주: 1999년 10월 개정된 국민소득생산계정(NIPA)을 이용·산정한 경제지표임.
자료: 미 상무부

향후 성장둔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서비스 포함)는 98년 1,643억 달러에 달하여 97년의 1,047억 달러보다 57%가 증가하였으며 99년 상반기에도 적자규모가 1,181억 달러에 달하였다.

한편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26.4%의 급등세를 보여왔던 미국의 주가는 99년 3월 이후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다우존스 지수는 1만 포인트를 돌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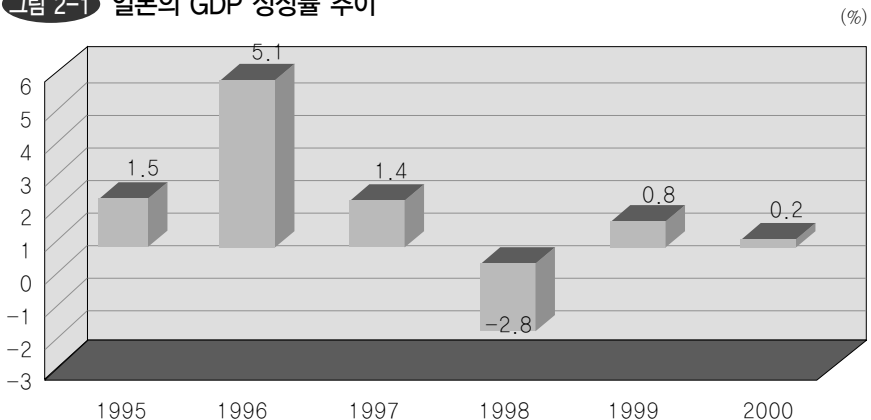
(2) 일본 경제

일본 경제에 그치는 등 91~98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에 그치는 등 심각한 경기침체 현상을 보였으며 97년에는 23년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률(-0.7%)을 기록하였다. 98년에는 -2.9%로 전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99년 상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그 동안의 장기침체의 주요 원인은 ① 금융자생력의 취약과 금융개혁의 지체 ② 성급한 긴축재정에 의한 내수위축과 디플레 발생 ③ 산업구조의 소프트화 실패와 노동의 고용경직성 등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98년 말부터 금융권 구조개혁, 재정지출 확대, 통화공급확대(금리인하),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경기회복의 장애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98년 10월 금융안정화 관련 법안 성립 이후 주요 15개 은행에 99년 3월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대형은행의 부실채권 문제의 조기 해결과 일본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일본 중앙은행은 99년 2월이후 통화공급량 확

그림 2-1 일본의 GDP 성장률 추이



주: 1999~2000년도는 전망치임.

대를 통해 단기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유도해 나갔다. 또한, 총리직속기관으로 '산업경쟁력회'를 설치하여 과잉설비, 고용의 조기 해소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금리하락으로 자금이 주식과 채권시장에 유입되어 99년 5월초 닷케이 주가지수는 14개월만에 1만 7,000포인트를 상회하였고, 등락을 거듭하던 엔화의 대미환율도 98년 10월 이후 99년 상반기까지 120엔대 전후에서 비교적 안정되었다.

전반적으로 99년 들어 전년도의 두 차례(4월과 11월)에 걸친 긴급경제대책에 의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해외투자자들의 일본 진출쇄도, 아시아 경제의 조기회복등에 힘입어 일본경제는 99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1.5%, 1.0%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서서히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EU 경제

96년 이후 활성화된 EU 경제는 98년에 2.7%라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98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인 금융불안의 여파로 EU의 성장은 둔화세로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99년 초반까지 지속되었다.¹⁾

98년 여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중남미지역에서의 금융위기 발발로 EU의惱개도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98년 4/4분기 이후에는 EU 경제의 기반

1) EU 회원국 15개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15개국임.

인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99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0.5%와 0.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민간소비와 고정투자의 역할이 컸는데, 98년 4/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0.7%와 0.4% 증가에 그쳤던 민간소비와 고정투자는 99년 1/4분기에는 0.7%와 1.8%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표 2-3 EU 경제의 경제성장 전망

(%)

	1998	1999	2000
Deutsche Bank	2.7	2.1	3.1
IMF	2.7	2.0	2.7
OECD	2.7	2.1	2.8
DRI	2.6	1.9	2.6
WEFA	2.8	2.0	2.8

자료: Deutsche Bank, Economic & Financial Outlook, October 19, 1999.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1999.

OECD, OECD Economic Outlook, Preliminary Edition, November 1999.

DRI, World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1999.

WEFA, World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1999.

이처럼 유로권 경제가 성장둔화에서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유로권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가 99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독일, 프랑스와 여타 회원국간 경기순환 격차도 좁혀지는 등 단일통화권 경제의 탄력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98년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2.2%, 3.4% 성장함).

3. 신흥시장 경제 동향

(1) 중국 경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98년에 7.8%를 기록하였고 99년에 들어서는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8.3%, 7.1%를 기록하였다. 최근의 중국 경제 성장의 지속은 중국 정부가 소비 부진, 실업률 증가, 사회보장제도 축소 등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사업 등 정부부문의 투자를 증대한 데 기인하고 있다.

수출부문은 98년에 이어 99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부진(상반기, 전년동기대비 4.6% 감소)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논란이 많은 인민폐 평가절하²⁾ 대신 수출증진책으로 수출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물가수준은 기업의 과잉생산과 민간소비 위축에 의한 공산품 가격 하락 등 디플레이션현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98년 -0.8%, 99년 상반기에 -1.8%를 기록하였다.

한편 경기위축과 국유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이 증가하여 98년 도시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3.5% 정도에 불과하나 정리해고 인원을 포함하면 8%(약 1,500만명)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도 감소하여 98년에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456억 달러에 그쳤으며, 99년 상반기에는 85.7억달러로 9.2% 감소하였다. 한편 99년 11월 중국은 미국과의 WTO 가입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중국의 무역 투자장벽과 업종별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서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이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인민폐를 평가절하 하지 않는 이유는 ▲건국 50주년을 맞아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시 하고, ▲WTO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환율안정을 통해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고, ▲아시아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평가절하의 수출증대 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2) 아시아 경제

98년 동남아 경제는 경제위기 발생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인 -6.8%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99년 2/4분기 이후에는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대외 경제여건의 호조로 동남아 주요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동남아 주요국은 99년 당초 예산보다 높은 2~5%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98년 1.5%의 경제성장을 보인 싱가포르의 견실한 경제구조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99년에는 5%이상의 고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고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을 겪은 태국과 정치·사회적 혼란이 병행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구조개혁을 바탕으로 각각 98년 -7%, -6.3%, -13.2%에서 99년에는 3%, 4%, 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 활발한 FDI 유입 등으로 90년대 초반이후 고도성장을 구가했으나, 98년에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여파에 따라 경기침체기를 겪었다.³⁾ 그러나 99년에는 이들 국가들의 ASEAN 가입에 따른 성장파급효과, 주변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기회복, 농작물 작황 호조 등으로 98년보다 다소 높은 3.8~5.5%의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97년 미얀마와 라오스의 ASEAN 가입에 이어 99년 4월 캄보디아도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동남아 10개국은 67년 ASEAN 출범 이후 32년만에 하나의 동남아를 이루게 되었다.

3) 인도차이나 국가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로 1998년에 각각 4.0%, 4.0%, 0%, 4.0%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함.

(3) 중남미 경제

98년 중남미는 아시아 경제위기, 세계경제 침체, 역내 주요국들의 긴축정책 실시 및 경제위기 발생가능성 고조, 투자위축, 기상이변 등으로 97년의 5.2%보다 크게 위축된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99년 경제성장률은 연균 브라질 경제위기에 이은 연내 금융시장의 불안정 확산과 정치적 불안정성 및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경제는 98년 0.2%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했으나, 99년 3월 IMF와의 제2차 합의를 기점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제고에 힘입어 인플레이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브라질 경제는 당초 기대보다 빨리 안정을 되찾고 있다. 99년 들어 농목축 및 광업 생산 증가에 따라 1/4분기와 2/4분기에 1.2%, 0.9%를 기록하였다.

멕시코는 98년에 4.8%라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했으나 신흥시장 위기 이후 나타난 세계경제의 침체속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99년 상반기에는 미국경제의 호황과 적극적인 채무구조조정, 금융개혁 단행 등 경제기초여건개선을 바탕으로 2.5% 성장을 기록하였다.

아르헨티나의 98년 경제성장률은 브라질 위기의 영향으로 97년에 비해 크게 둔화된 4.2%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했다. 99년에도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외채누증 우려에 대한 여파로 상반기에 4% 하락하는 등 극심한 침체를 보였다.

(4) 러시아 및 동구권 경제

러시아 경제는 98년 실질GDP성장률 -4.8%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99년에는 루블화의 가치하락과 국제시장에서의 에너지가격 상승에 힘입어 감소세가 차츰 둔화되는 양상(99년 상반기 -0.7%)을 보였다.

98년 8월 금융·외환위기의 발발로 물가상승률은 98년에 84%에 이어99년 3/4분기까지 31%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환율은 금융위기 직전 6.2루블이었으나 99년 4월에는 25루블을 상회하였다.

수출입은 98년에 이어 99년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환율급등으로 수입감소세가 두드러져 무역수지가 확대되었다.

또한 러시아 금융위기는 98년 말부터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인근 CIS지역으로 전염되어 이 지역에서 심각한 경제불안을 초래하였다.

98년 동구의 경제성장률은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경제위기 영향으로 2.4%로 나타났으나 99년에는 이보다 낮은 1.6% 전후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98년 8월 러시아 경제위기와 99년 3월말 코소보(Kosovo) 사태는 동구 경제의 이분화를 촉진하였다.

즉,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개혁선도국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반면, 발틱국가들이나 개혁후발국인 발칸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중·동구 개혁선도국들도 국내수요 둔화와 EU의 경기둔화, 그리고 코소보 사태에 따른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의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고 있다.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 95년 이후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제 기초여건이 악화된 상황하에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외화자금의 급격히 유출되어 금융시장 불안 지속
- 97년 하반기부터 외국인투자자금의 대거 이탈과 이로 인한 루블화 가치절하 압력증대로 외환위기 상황전개
- 98년 8월 17일 러시아 정부가 루블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와 더불어 대내외 부채에 대한 부분적인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채권시장의 정지 등 긴급조치 발동
⇒ 이러한 조치는 즉각 환율의 급등과 금융권의 마비를 초래하였고 전체 경제 활동이 극심한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브라질 금융위기〉

- 브라질은 재정적자(GDP의 8% 상회) 및 경상수지 적자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선 노력이 실패하고 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신흥시장 혼란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급격한 외자유출을 겪어왔음
- 99년 1월 6일 미나스제라이스 주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부채상환 중지를 선언
- 이는 20%이상 고평가되어 있는 헤알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더욱 부추켜 급격한 외자유출로 이어짐
 - 이에 브라질 정부는 1월 13일 전격적인 헤알화 평가절하 단행
 - 1월 14일 추가적인 평가절하 우려로 하루만에 18억달러의 외자유출
 ⇒ 결국 브라질정부는 1월 15일 헤알화의 방어를 포기하고 사실상 변동환율제를 채택.
- * 브라질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재정운영의 취약,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있었음

4. 국제금융 · 상품시장

(1) 국제금융시장 동향

98년 주요국의 장기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99년에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우선 미국 장기금리(TB 30년만기)는 8월의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99년에는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인상하고 통화정책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한데 따라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본 장기금리(JGB 10년만기)는 98년 3/4분기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상승 추세로 반전되었다. 이 기간중의 상승요인은 무디스榜의 일본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및 일본 정부의 국채발행 계획에 따른 공급물량 우려 등 99년에는 2월 이후 실시된 제로금리정책에 따라 1%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면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유로금리(독일 국채수익률 기준)도 98년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말에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연말 상승은 미국의 금리인하와 이에 따른 선진국들의 금리인하 동조, 그리고 G7의 국제금융위기 탈피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10.30) 등에 힘입어 국제금융시장의 혼조세가 다소 진정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었다. 99년에는 미국금리와의 동조현상이 뚜렷했으며, 2/4분기 이후 경기회복 및 물가불안에 대한 징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미 달러화는 98년 상반기에 엔화 및 마르크화에 비해 강세를 보였으나 러시아 모라토리엄 이후 약세로 반전되었다. 99년 상반기에는 일본 및 유로지역의 경제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미 달러화는 일본 및 유로 지역의 경기회복 가시화에 대한 자본이동에 따라 약세로 반전되었다.

일본 엔(圓)화는 9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일본경제의 경제기초여건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시현하였으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미국경제에 대한 불안감 고조 등에 따라 강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99년들어 미·일간의 금리차이 및 경제력 격차에 따라 다시 약세로 반전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일본경제에 대한 기대 및 외국인의 자금유입이 증가하여 다시 강세로 반전되었다.

표 2-4 주요 환율 현황

구 분	1998	1999				
		1/4	2/4	3/4	4/4	
					Morgan	WEFA
엔(圓)/달러	130.8	116.6	120.8	113.5	108.0	121.7
달러/유로	1.16	1.12	1.06	1.05	1.09	1.12

주 : 1) 기간평균 환율

2) 유로화의 98년 환율은 연말의 1유로당 1,1667달러임.

자료 : DRI, World Markets Report, 각호.

J.P. Morgan, World Financial Markets, Fourth Quarter 1999.

J.P. Morgan, Global Markets Outlook and Strategy, Sep. 1999.

WEFA, World Economic Outlook, Third Quarter 1999.

99년 1월에 출범한 유로화는 상반기에 약세를 지속하다가 하반기부터 소폭 상승하였다. 유로화는 도입초기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7월중 한때 1.0달러/유로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만큼 예상외의 약세를 지속하였다. 유로화의 약세는 미국경제에 비교되는 부진한 유로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 유럽중앙은행(ECB)의 저금리기조 유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럽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확산 및 물가불안 예방을 위한 통화정책의 운용 가능성 등에 따라 유로화 강세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 국제상품시장 동향

98년에 이어 99년에도 국제 곡물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옥수수, 소맥, 대두, 쌀 등 주요 곡물의 양호한 작물성장 조건으로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구소련, 중남미 등지로 확산되면서 곡물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9년 곡물가격은 90년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99년 7월 옥수수가격은 부셸당 203.3센티로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소맥의 가격도 동월 부셸당 263.8센티로 1월 대비 4% 하락하였다.

국제 비철금속가격은 97년 하반기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대폭적인 수요감축과 비철금속 생산업들의 증산으로 인한 공급과잉에 따라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99년초까지 하락세가 계속되었으나, 99년 3월 들어서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99년 비철금속가격은 90년대 들어 최저수준에 머물렀으나, 3월이후 상승세로 반전된 결과, 7월 현재 동(垆) 가격은 2월대비 17% 상승한 톤당 1,609달러, 알루미늄의 가격은 2월대비 18% 상승한 톤당 1,384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국제유가는 97년 후반부터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확산과 97년말 OPEC의 98년 생산상한선 10% 확대 등을 계기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98년말에는 연초에 비해 40% 이상 폭락하였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99년 3월 OPEC을 비롯한 산유국들의 추가감산 결정을 계기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99년 8월 현재 최저수준을 기록한 지난 2월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98년말 한때 한자리수대에 머물던 브렌트유는 8월 현재 20억달러를 넘어섬으로 2월 대비 약 2배 상승하였다.